

영등포 역 노숙인을 따뜻하게 사랑의 잔치 열려

(주)해피나우, 밥사랑열린공동체

황우여 원내대표
 나경원 서울시장후보
 식사배식봉사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가하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격한 기온 차이로 고통 받고 소외되어 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노숙인들을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되었다. 이날 예장(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나경원 서울시장후보가 직접 배식봉사에 참여했으며, 노숙인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사)HAPPY NOW를 후원하는 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가운데 100 여명의 노숙자들을 섬겼다. 참가하는 봉사자는 17일 점심밥을 배식하고 목도리와 양말을 나누어 주어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보살피는데 몸소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전달하고, 그런가하면 지난 2월 '살날희망큰잔치'로 큰 호응을 얻었던 '노숙인 노래자랑'이 이번에도 열려 1등을 한 노숙자에게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선물이 증정되고 노숙인들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다.



(사)해피나우는 금번행사를 통해 사회봉사단체 및 기업체와 개인 후원자의 참여가 높아져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제고되어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가치 있게 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섬김을 배우며 가족단위의 봉사자들이 함께 배식봉사에 나섰다. 한편 해피나우 관계자는

영등포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과 헌 옷 후원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영 목사(사무총장)의 광고가 있는 후 박희돈 목사(밥사랑공동체대표)축도로 마쳤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1. 예빛국악창단의 특송이 있는 후 예장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원내대표), 나경원 서울시장후보가 격려사를 했으며, 노숙인의 직업과 노숙인의 가정의 회복을, 노숙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합심기도회를 가졌다.

이어서 박원영 목사(사무총장)의 광고가 있는 후 박희돈 목사(밥사랑공동체대표)축도로 마쳤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1. 예빛국악창단의 특송이 있는 후 예장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원내대표), 나경원 서울시장후보가 격려사를 했으며, 노숙인의 직업과 노숙인의 가정의 회복을, 노숙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합심기도회를 가졌다.

한국교회 갱신, 구국위한 기도 합성 상암벌 달구어

하루 5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별기도대성회로 단일교회로는 가장 큰 규모의 기도회로 열렸다. 조용기목사 "기도는 부흥의 열쇠다" 10만명 참석 한반도 통일 위해 특별기도 한국교회 갱신과 구국을 위한 기도 합성이 상암벌을 달구었다. 14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 갱신

을 위한 금식기도 대성회'에는 10만 여명이 참석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원로목사 조용기목사, 담임 이영훈목사) 주최로 열린 금식기도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령의 바람'이란 슬로건 아래 열렸다. 이번 성회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를 주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및 지교회, 직할성전과 형제교회, 기하성 소속 교회에 속한 교역자와 성도, 국제교회성장대회에 참석차 내한한 전 세계 65

개국 대표 2천여명 등 모두 10만명이 참석 한국교회 갱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금식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성령충만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영적 갱신을 위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기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도는 부흥의 열쇠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도의 진실한 기도"라고 피력했다. 또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금식기도대성회로 이끌었다"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 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한반도와 세계 모든 교회

가 새롭게 될 것"이라면서 "영광스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서 계속>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지스티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96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환 제96회기총회 · 노회임원단합대회 영

주제 :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마 25:21)



총 회 장
성홍경 목사
 수원송석교회



제96회 정기총회

· 날짜: 2011년 11월 7일(월)~8일(화) 오후 4시

· 장소: 용인 한화호텔 앤드리조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257-1)

· 접수: 2011년 11월 7일(월) 오후 4시부터

· 개회예배: 11월 7일(월) 오후 5시

· 전화: 031)332-1122 · 문의: 010-8602-3009(총무 신언창 목사)

<http://ws21.onmam.com>

●총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606-7 ●팩스: 02)835-2608

한국교회 갱신, 구국위한 기도 합성 상암벌 달구어

▶면이어

이와 함께 대화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상은 교회의 영향력을 더없이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사회 각처에는 부정 부패와 자살이 만연하고 한반도는 화합보다는 견제와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적으로 영적 정결함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면서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막대기 비유를 통해 두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한반도와 모든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라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혼을 삼의 전반이 부흥케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장 김원철목사는 “2천년 교회사를 통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 왔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통회자복하며 기도의 무릎

을 꿇어야 할 때임을 절실히 느껴 금식기도대성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매년 2년마다 기도대성회를 그간 개최해 왔으며, 하루 5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별기도대성회로 단일교회는 가장 큰 규모의 기도회로 열렸다. 기도대성회는 대화장 이영

훈 목사의 대화사를 시작으로 1부 한반도의 평화 예배, 2부 교회갱신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배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참가품 시티하베스트교회 롱히 목사 내외를 비롯 미국 킹스 캐스럴 앤드 채플의 제임스 마로코목사, 필리핀 캐스럴 오브 프레이스 데이빗 썸멜목사, 말레이시아 갈보리교회 담임장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세계오순절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조용기목사는 2부 예배 설교를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새로운 교회의 미래 비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번 성회를 위해 금년 4월부터 19개 분과를 조직하고 기도로 준비해 왔다.

꺾어져서 하나님 찬송) 또 편집위원 15명을 구성, 찬송가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장통합은 법인찬송가 공회를 인정하고 있다. 예장통합도 이번 총회에 “찬송가공회에 대한 재조사 및 정상화를 위해 총회 차원의 조치해 달라”는 회의안이 올라왔으나 논의하지 않고 바로 임원회로 넘겼다. 그간에 교단이 대처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이미 예장통합 내에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올해 예장통합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인찬송가공회에 권유한다”는 대책이 전무다.

법인찬송가공회가 예장통합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교단의 권고나 권유가 먹힐 것 같지 않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찬송가 판권 판매를 자유시장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 교회 음악 발전과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사이 찬송가공회는 교단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단들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먼저 길을 뚫아둔 건 예장합동이다. 예장합동은 법인찬송가공회를 인정하지 않고, 8월 19일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한 비법인찬송가공회를 인준했다. (관련 기사 : 갈가리

꺾어져서 하나님 찬송) 또 편집위원 15명을 구성, 찬송가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장통합은 법인찬송가 공회를 인정하고 있다. 예장통합도 이번 총회에 “찬송가공회에 대한 재조사 및 정상화를 위해 총회 차원의 조치해 달라”는 회의안이 올라왔으나 논의하지 않고 바로 임원회로 넘겼다. 그간에 교단이 대처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이미 예장통합 내에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올해 예장통합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인찬송가공회에 권유한다”는 대책이 전무다.

법인찬송가공회가 예장통합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교단의 권고나 권유가 먹힐 것 같지 않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찬송가 판권 판매를 자유시장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 교회 음악 발전과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사이 찬송가공회는 교단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단들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먼저 길을 뚫아둔 건 예장합동이다. 예장합동은 법인찬송가공회를 인정하지 않고, 8월 19일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한 비법인찬송가공회를 인준했다. (관련 기사 : 갈가리

사모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동시에 영광의 길



목회자 사모들의 영성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과 재도약을 꿈꾸며 ‘건강한 사모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7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되었다.

이번 ‘제17회 전국목회자사모 세미나’는 지난 2011년 10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청주금식수양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청주금식수양관(원장 백효선 목사)이 공동주최했다.

세미나 강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오관석 목사(월드비전교회), 강문호 목사(갈보리교회), 김문훈 목사(부산포도원교회), 이영환 목사(대전한밭제일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손현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 백효선 목사(청

울예정교회) 등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사모 개인의 영성과 목회자인 남편 목사와의 관계, 사모의 사역노하우 등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였다.

이번 ‘제17회 전국목회자사모 세미나’에 참석한 사모 중 러시아 선교사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유정숙 사모, 전북 부안의 신흥교회 이양근 사모, 서울 은평명감교회의 안정임 사모등 많은 사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세미나였다고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아울러 이 세미나를 총괄 진행했던 서울 예정교회 설동욱목사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세미나에서도 사모님들을 깊이 있게 만지셨고 안아주셨다며, 세미나에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만지심을 통한 영혼의 감동과 회복이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회자사모들과 항상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제17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성료...

10월 3~6일 청주금식수양관에서

이번 사모세미나는 참석한 모든 목회자사모들이 사모의 길인 십자가의 길인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며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금식수양관(원장), 손인경 박사(삼순한의원 원장), 우명자 사모(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윤난영 사모(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하귀선 선교사(세계터미널선교회), 설동욱 목사(서



가지고 있던 찬송가를 버리고 새 찬송가를 사야 한다. 이만열 명예교수(수명여대)도 “이런 다름 때문에 찬송가가 분열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했다. 성경 개정과 <21세기 찬송가> 출판으로 성경책과 찬송가를 새로 산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찬송 합본 시중 평균 가격은 2만 5,000원이다. 풍돈은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은 하나의 찬송을 사용하면서 유지한 교회 일체감 상실이다. 1983년 통일찬송가를 발간해서 지금까지 어느 교단 어떤 교회를 가도 교인들은 같은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다. 교단 연합 예배를 해도 찬송가 한 권이면 문제없이 예배할 수 있었다. 김정명 원로목사(여수 은현교회)는 “여지껏 한국교회가 하나의 찬송가로 찬양했는데 나

뉘져서 아쉽다.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탄호이저는 베누스의 동굴에 빠졌던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연인의 희생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각 교단과 법인찬송가공회는 찬송가 분열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news njoy 제공 편집

각 교단 이권 다툼에 찢어진 찬송가

찬송가 판권 둘러싼 싸움에 30여 년간 유지된 찬송가 통일 무너져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8개 지사 / 해외 13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부 할 교 회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5: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7:30

담임목사 : 이재원

교 회: 459-110 경기도 평택시 자산동 808-1
☎ 031-611-0191, 011-792-0191
e-mail: leepastor0191@hanmail.net

승 리 교 회

표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히6:14)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9:00

담임목사 : 김효순

교 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95-5
☎ 010-3025-4625

대 한 예 수 교 회 동 서 올 교 회

담임 지영철 목사 외
교우 일동

담임목사 : 지영철

(134-85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9-3
☎02)474-1353 011-413-1229

세계로개혁신학 · 신대원

합동개혁 총회



이사장 : 홍 두선 목사

총장 : 신 동수 박사

학장 : Dr . David Kim

학장: 데이비드 김 목사
청주 수곡2동 청주우편집중국 버스정류장 앞
☎ 010-2802-3928 / 070-7581-0012
e-mail: yhk62@hanmail.net

행복샘 교회

표어: 좋은 만남 · 행복한 성도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11:00
주일오후	오후 1:40
수요일 밤	오후 7:30
금요일 밤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매일기도회	자유로이

담임목사: 박 수 영

교 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2(지하철 1호선 신천역 하차, 신원지아도 옆)
☎ 053-752-8238, 010-8537-8291
e-mail: boas7@hanmail.net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 장 : 광순총 목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곽영민 목사 심령회복 성회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

경인부흥사협의회 기획장.
세계 한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 실무국장.
세계주영광 부흥사 협의회 수석 상임회장 및 사무총장.
저지스 타임즈 인천지사장 및 본사 편집국 부장.
백석총회 인천노회 소속.
(예 · 장·통·불·교 개척 및 담임.
예수능력 치유 센터 설립 및 원장.
은누리 선교회 21대 회장.“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010-2080-0651

성 · 회 · 일 · 정

9월: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 성회” 매주 목요일 밤(인천·예수능력 치유 센터(동불교회).
“가을맞이 대성회” 5일(월)-8일(목) (인천·세창초 기도원(원장 김주형).
“심령회복 성회” 19일(월)-22(목) (순천·순천 영성원(원장 최승리 목사).10월: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 성회” 매주 목요일 밤 7:30(인천·예수능력 치유 센터(동불교회).
“심령회복 성회”
11일(월)-13일(목) (대구·대구하나 기도원(원장 권태욱).
17일(월)-20일(목)전남 순천 영성원(원장 최승리 목사)“세계주영광 부흥사 협의회”에서
함께 하실 부흥사를 모십니다.대한예수교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장 로 회
http://kmission.onmam.com
cafe.daum.net/kmission
☎032-891-0651, 010-2080-0651
담임목사: 곽 영민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맨발의 소명자로 한국교회 섬김이와 민간 외교관의 사명을 감당해온 사언테노교회 소강석 목사(蘇康錫, 49세)가 외교통상부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맞아 '미주 한인의 날' 제정기어,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초청행사 개최, 미주 한인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등 한-미 관계 발전과 미주 지역 동포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공동대표와 한일기독교의원맹 지도목사로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은 물론 디아스포라 재외동포들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쏟아온 소강석 목사는 “역사적 책임의식과 사회적 나눔 실천과 민간 외교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시작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귀한 훈장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송구하리 따름이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추긴 저와 새대내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시대적 사명이요, 달란트였기에 당연히 할 도리라고 생각에 왔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때에, 대교회회도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역사적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 회복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마음으로 섬기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적 섬김 사역을 해 왔다. 바로 이러한 일이 교계의 평가가 아니라

한미 관계 발전과 미주 지역 동포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



사회적 국가적 평가를 받고 훈장을 수상하였기에 더 감사하다. 이 서훈은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 새이념교회의 애국적 사역을 국가가 인정하고 평가한 것이다. 앞으로 더욱 사랑과 평화의 꽃씨를 뿌리는 피스메이커로 700만 재외동포들의 위상 강화와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소 목사는 “특별히 새
예언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세계한
인교류협력기구와 미주한인재단
과 미주한인회와 조지 알렌 前
미연방 상원의원과 헤럴드 번 회
장과 친교를 박사를 비롯한 그동
안 뜻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
사드립니다.”며 인사했다.

소강석 목사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미주 동포사회와 기독교계, 그리고 많은 한인지도자들을 물론 양면으로 지원하여 미국 내 한인들의 영향력 확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 왔으며, 미국 정부와 연방 상·하 의원 등 주요 인사들

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주 한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소강식 목사는 세계적인 교류협력기구 공동대표로 봉사하면서 공동대표 김영진 국회의원과 공동대표 황우여 국회의원과 함께 미주 한인 의 날과 세계 한인 의 날 제정을 위한 입법 및 서명운동 전개와 다양한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는 민간 종교단체 최초로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초청행사'를 기획하여 금년까지 5회째 주최하고 있다.

이제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초청행사'는 새에덴교회의 브랜드사역이며 국제적인 민간외교 행사로 자리 잡아 우리 정부와

언론은 물론 미국 정부와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들, 미국 언론과 국민들에게까지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한편, 목회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외교교통상부에서 훈장을 받게된 특별한 이력을 갖게 된 소강석 주사는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으며 역사적 책임과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로, 민간 외교에 앞장서는 목회자로 알려졌으며 2007년에는 미국 마틴 루터 킹 재단에서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종교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미국 해외 참전용사 협회에서 수여하는 영예의 금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한기총은 다락방영입교단 회원자격 박탈하라

총신, 장신, 고신 등 전국신학대 교수 34명, 한기총에 요구

전국 신학대 교수 34명이 한
국기독교총연합회에 다량방전도
총회와 협동하는 예정개혁교단(총
회장 조항삼 목사)의 회원가입
을 위한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
다. 지난 5일 예정합동, 통합을
비롯한 11개 교단 이단사이비대
책위원회가 회원가입을 철회하
라는 요구를 한 데 이어 나온 것
이다. 박용규(조선신학대학 교
학원), 박명수(서울신학대학교),
박성원(영남신학대학교), 이상
규(고신대학교), 이승구(합신대
학원 대학교), 이은선(안양대학
교) 교수 등 34명의 교수들이 14
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얼고 이갈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김지연 목사)가 설립 후 지난 20여 동안 한 번도 이단교단을 가입시켜 온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고 "이 같은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지난 2011년 9월 22일 한기총이 다라미총회(류광수씨)를 영입한 개혁신회(조경삼 목사 측)의 한기총 회원 자격을 인준하고 '회원단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락방(류광수)에 대

한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재 이들 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도 다락방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한국교회 정통교단의 연합 기구인 한기총은 다락방총회(류광수 측)를 영입한 개혁측(조경삼 목사 측)의 한기총 가입을 원천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 연합기구인 한기총은 이단을 배격해온 한국교회 전통을 존중하여 이단에 맞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한기



대표회장
배정호 목사

이사장
정재은 목사

임회장 김원준 목사(비전교회)
축도로 마쳤다.

오후 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14일(금)오후 3시5시30분까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있을 네오 이노베이션(새로운 개혁,혁신)포럼 세부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날 행사조직은 현 임원체제로 할 것이며, 분야별 주제 및 강사는 경제(강사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 사회,문화(강사 손봉호 서울대교수) 복지,농어촌(강사 정재은 이사장), 교계(강사 배정호 대표회장)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한기단의 임원은 이사장 정재은 목사, 총재 이충열 목사, 대표회장 배정호 목사, 상임회장 김원준, 김기성, 박승현, 변정섭 목사, 실무회장 정진오, 최병관, 박창운 목사, 사무총장 곽동훈 목사, 총무 황성만 목사, 서기 정대규 목사, 부서기 유희덕 목사, 회계 양영록 목사, 부회계 이인숙 목사, 감사 우명순 강도사 등이다.

대표회장 배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한기단을 설립하게 되었다며 한기단 앞에 감사사를 영광을 돌려드렸다. 또한 기단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었기에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겠다고 말하고 대표회장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과 진실한 협조를 부탁하면서 한국 민족중흥의 동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한기단이 되자”며 취임사를 전했다.



한기총 다락방 회원자격 박탈하라

총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고 압박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기총의 이번 결정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은 물론이고 한국교회가 피땀 흘려 전도한 열매인 교인들을 미혹하

는 이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전체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개혁과 사태의 재 衫妍蚩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재교 강요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동로 188 010-5255-7777 jongje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1-7770		 피종진 목사
피종진 목사 11월 국내·외 성회 일정		
10.30(주)~2(수)	새창원혜교회(미은혜 목사) ☎(055)238-0192	
6(주일) 저녁	광택 토인교회(주권선 목사) ☎(031)683-6010	
7(월)~ 9(수)	서울 우리교회(박석구 목사) ☎(02)715-5792	
10(목)~11(금)	서울 건강교회(오도재 목사) ☎(010)-3730-2921	
24(주일)~25(월)	청주금석수양관(원장 박효선 목사) ☎(043)269-5211	
17(목)~19(토)	서울 성남교회기동원(원장 노인자 목사) ☎(02)494-3853	
18(금) 오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목회실천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21(주일)~23(수)	서울영성대(김남식 목사) ☎(010)-3350-0091	
24(월)~25(금)	제주지역 연합성회 및 세미나(제주지역총대 박만재 목사)	
	주최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25(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목회실천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27(주일) 저녁	김영주안교회(정성은 목사) ☎(055)336-2744	
	주최: 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대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	
28(월) 오전	청주금석수양관(원장 박효선 목사) ☎(043)269-5211	
29(월)~12.1(목)	서울 성남중앙교회(강명준 목사) ☎(02)456-1091	

'언어의 원형을 찾아라!'(The origin of language) '언어의 모본을 찾아라!'(The model of language) '언어의 영성을 찾아라!'(The spiritual of language) '호흡의 생기를 회복하라!'(The breathing of life)

축복언어 세미나 100회 기념 축복언어로 전도의 문을 여는 전국국어 컨퍼런스






[100차] 10월25일(화) 중흥교회 02-476-7131 / 5호선 뉴촌역 3번 출구
[101차] 10월27일(목) 불타상업빌딩 070-4099-0670 / 2호선 성수역 1번출구
[102차] 10월31일(일) 삼정대입교회 02-968-0691 / 4호선 미아삼거리역 한남출구
[103차] 11월6일(토) 향주순복음교회 031-368-5747 / 경기 파주시 발원읍 삼발리
[104차] 11월7일(일) 다움스피치센터 070-4388-9176 / 6호선 정자역 가든마그브
[105차] 11월13일(일) 순천별빛교회 061-722-4580 / 순천시 해룡면 상날리

강사: 김경도 목사 / 심영섭 박사 / 신용호 목사 / 임종선 목사

주최: 전국기독교문화센터 **주관:** 다움스피치센터 **후원:** CTS기독교TV, CBS, 극동방송, 좋은학교운동연합

참가료: 무료이며 교재비 1만원 입금금 마감, 행사 참여자에게는 식사 및기념품제공 (국민은행 486801-01-360276 CTS기독언어/송세운)

"그리스인의 말이 번쩍어 그리스인의 삶이 번창하." 나는 왜 말에 부림을 가져오는가? 나는 왜 말할 때 힘이 드는가? 나는 왜 말하고나서 후회 하는가? 나는 왜 목이 쉬었는가? 나는 왜 정말 할 말을 못하는가?"

연세대원 총동문회장 김헌수 목사를 선출

모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총동문회를 섬길 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대학원 제16차 정기총회를 갖고 김헌수 목사를 신임 총동문회장으로 추대하고 이경은 목사(진주주교대교회)를 수석 부회장에 선출했다.

10월17일(월)오전11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연대동문회관 2층 중연회실에서 제16차 정기총회에서 1부 개회예배에 수석부회장 김헌수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정상업 목사(부회장)가 대표기도를, 서기 엄기영 목사는 레위기 6장12:13절을 봉독하고, 총동문회장 장항희 목사는 "간직하는 은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학장 정석환 박사, 증경회장 황원택 목사가 축사를,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날 연세대 대학원 학장 정석환 박사는 총동문회장 장항희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사무국장 배진구 목사가 광고를, 증경회장 김병운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회무처리에서 새임원진을 구성하고, 총동문회장에 김헌수 목사(꿈너머 꿈교회)를, 수석 상임회장에 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를 선출했다. 또한 사무국장 배진구 목사, 서기 엄기영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제16차 정기총회



목사, 회계 엄주갑 목사, 총무 김희준 목사, 부총무 김향숙 목사를 유임 시켰다. 이날 신임 총동문회장 김헌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모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새로운 변화로 동문회를 섬길 것을 약속하고 소감을 밝혔다.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 폐막

유럽교회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유럽성시화순회대회로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가 12일 대회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회를 마쳤다. 마지막 날 오전 집회는 유덕준 장로(대전홀리클럽 회장)의 사회로 김영명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의 대표기도, 박상길 장로(서산홀리클럽 회장)의 성경봉독, 보령 대동교회 중창단의 찬양에 이어 황용대 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가 설교를 했다. 황 목사는 '이 예루살렘을 어찌할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이 있다면 '이 도시를 어찌할꼬'라는 안타까움이 있는지 자문해 보라"며 "교회 부흥과 함께 정의운동, 사랑운동, 창조보존운동 등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또 "사회와의 소통문제도 중요하다"며 "기독교와 문화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종의 장로(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정완진 장로(유럽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최학량 목사(LA성시화운동본부)가 사역보고를 했다.

현종의 장로는 제주홀리클럽을 통해 제주홀리스카우트를 창단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다. 정완진 장로는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신부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해 분열됐다. 영국성시화운동본부는 동성애를 반대해 나온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승 목사는 경남성시화운동본부가 호주선교기념관 건립 등 경남선교의 뿌리와 역사를 정리하는 사역을 보고했다. 최 목사는



군 선교 사역을 보고했다. 이어 열린 오전세션에서는 권태진 목사(사회복합법인 성민원 이사장)가 '성서복지목회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 금병달 목사, 김정진 사모(미주성시화운동본부 가정문화원 원장)가 '자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성시교육포럼을 인도했다. 또한 '제4회 세계성시화지도자전략회의'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아름다운 서산, 깨끗한 서산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서산시 시내로 흩어져 쓰레기를 줍고, 서산시 청양광장에 모여 복음으로 서산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다.

저녁집회는 이재철 목사(서산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덕상 장로(대구경북 홀리클럽 회장)의 대표기도, 지극성 장로(충남성시화운동본부 노인복지국장)의 성경봉독,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특별찬양에 이어 명성훈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어 김홍규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이재창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설교했다. 아울러 서산순복음교회 백종석 담임목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대회선언문이 발표됐다. 한편 내년 대회는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성장을 위해 유럽성시화순회대회로 치루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서 얻은 현금 500만 원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범죄피해자돕기에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충남성시화운동본부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성시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인구 16만의 소도시에서 열린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는 김창수 감독(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대표축도와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 전원이 앞으로 나와 공동축도로 '성시화의 꿈, 서산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중앙노회) 제24회 정기노회

신임노회장 정기환 목사 선출 및 송춘석 준목 목사안수 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스)총회 중앙노회는 20일 인천시 연수구청학동 소재 향기로문교회(담임 정일량 목사)에서 제24회 정기노회를 갖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를 신임노회장에 선출했다.

정기환 목사(부노회장)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최재필 목사(행복을주는교회)가 기도를, 양현모 목사가 성경 에스겔 37:1~14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살리는 운동 대언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2부에는 증경노회장 정일량 목

사(향기로문교회) 집례로 성찬식이 진행되었으며, 양현모 목사(살롬주사탕교회), 서기 최재필 목사(행복을주는교회)가 분병, 분잔위원을 맡았다.

3부는 임직예배가 드려지고 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목사안수식을 갖고 송춘석 준목을 목사로 안수했다. 이날 안수위원은 노회장 정기환 목사 증경노회장 임철환, 정일량, 윤동남, 정기환 목사 등이다.

4부 제24회 정기노회 회무처리에서 정기환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서기 최재필



목사, 부서기 강석홍 목사, 회록 서기 양현모 목사, 부회록서기 이

기수 목사, 회계 손성규 목사, 부회계 정광철 목사 등이 유임됐다.

백석 총회 인천노회 가을 체육대회 열어

예장 백석총회 인천노회(노회장 박정식 목사)는 지난 10월 10일 월요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원적산 공원'에서 노회 체육부 주관으로 "제2회 노회 체육대회"를 열었다. 총 6개 시찰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오전 9:30분부터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 목회자들만이 아닌 부부 동반으로 모여 족구, 축구, 줄다리기, 릴레이 등 체육 행사와 함께 시상 1등(30만원), 2등(20만원), 3등

(10만원), 기념품(장우산)과 자전거를 비롯한 여러가지 경품 추첨,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노회 체육 행사를 통하여 노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에 일조했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를 마감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 9월 말 노회원 부부동반 일본 단체 관광 이후 이루어져 노회 결속을 다지는데 일조했다. 인천에서 편성국 부장 광영민 기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위임예배

27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분당에서..홍정길 목사 설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은 이재훈 목사 위임예배가 27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분당에서 임시당회장 김진홍 목사의 인도로 드린다.

이날 예배에서는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가 설교하며, 서

약, 선포, 권면, 축사,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온누리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 노회장 최기용 목사 등 노회 관계자들과 예장통합 부총회장 손달익 목사가 참석해 이재훈 목사와 교회를 축복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1년 표어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요4:24)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2시
심일밤 오후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담임 모상련 목사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담임 김농주 목사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8: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알파과정	오후6(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학교	오전 9:20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청년부	오후 7:30(토)

퓨전식 소스 삼겹살 전문점

뭐꼬?

뭐꼬 허브 삼겹살은?
상상한 삼겹살에 생 허브를 넣어 숙성시킨 것으로 돼지고기의 비릿한 내음을 제거시키고 소화촉진을 돕습니다.

Basil(바질): 입맛을 돋우며 소화 촉진 효과(원산지: 인도).
Roseary(로즈마리): 좋지 않은 냄새 제거효과(원산지: 지중해).
Thymy(타임): 경련해소 작용 효과(원산지: 중유럽).
Bayleaf(월계수 잎): 향기작용(원산지: 지중해).
Tarragon(타라곤): 향기 및 소화(원산지: 시베리아).
Oregano(오레가노): 꽃 바하라 불리며 상쾌한 맛 제공(원산지: 유럽).

임지탕 수제비는?
들깨 + 도토리 수제비로 참깨, 검정깨, 들깨가 어우러진 수제비로 구수하고 영양 만점의 웰빙 건강 음식입니다.
임지탕 수제비 한 그릇에 5,000원, 고기도시면 4,000원.

경북 김천시 부곡동 1490
홍성수,김희숙 집사 H.P 011-532-1348
체인점 문의: 054-437-690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장로회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심재호 목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 5동 169-210 (5층)
☎ 02)951-4331 935-4611 H.P 010-6350-4611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353-5830 H.P 010-8585-9137

<예배안내>

구분	시간
주인 1:00	오전 11:00
주인 오후 예배	오후 1:3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구분	시간
사별기도회	새벽 5:00
양로동례회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청년회노	토 7:00

문예응모 수상작품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대상)

나를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

유 주연

가고 싶은 길 가려고
가기 싫은 길
열두 바퀴 에둘러
나, 여기 왔네

희망인줄 알고
절망을 버리고
광명인줄 알고
어둠을 버리고
행복인줄 알고
불행을 버리고
불잡으려 달려갔던 신기루

이렇게, 광야 길 사십년을
돌고 돌아 나 여기 왔네

이제, 당신과 함께 걷는 길
손잡고 동행하는 길
광야 길이어도 좋네

황토 길, 오솔 길
가시 밭 길이어도
외롭지 않겠네.

나를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

G에게

유 주연

당신은 없는 듯
항상 내 곁에 계시네요.

하늘과 땅 사이 아물 아물
모래바람 자욱한 광야 길
다리 지쳐 나 홀로 가는 길
길도 없고 물도 없어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삼무三無의 공간
외톨박이 광야

여기서도 난 외롭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당신이 내 곁에 계시
내 손잡아 주어요

있음'이 '없음' 이고,
'없음'이 '있음' 인 광야

내가 기댈 당신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당신 아니 보여도
당신 숨결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당선소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



유주연 시인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대상)

작품: 나를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 외 1편
· 1966. 11. 19일생
· 건국대학교 문예창작아카데미 수료
· 건국대학교 통합논술아카데미 수료
· 건국대학교 선교사 아카데미 수료
· 연락처 : 010-5530-5095

스치어 지나가는 환영들이 눈부시다. 어둠속 산과 나무 꽃과 새들 흐르는 강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내 곁에 영원한 것은 발등에 떨어져 누운 칙칙한 어둠 뿐, 지금껏 내가 찾아 헤매던 것은 무엇일까 소멸의 길 달려가는 어둔 밤의 고속도로 이 모든 내가 꿈꾸던 것, 맞추어지지 않는 퍼즐조각,... 돌 하나 고이 깎아 부처를 만들어 세우고, 석공은 목숨 들여 혼 불을 불어넣어 절하며 산 부처 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세월가고 석공도가고 하늘땅 뒤바뀌어 이끼 덮인 어깨위에 의미하나 서리었다. 그 자리 굳게 지키며 웃고 있는 돌부처,...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수년 동안 문학을 통해 나를 찾아 나아갈 길을 열어 보여주신 박영남 교수님과 저지스타임즈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올리며, 그동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준 나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년 10월 찬 이슬 가을밤에 유주연

심사평



박영남 교수

· 건국대학교 문예창작 아카데미 교수,
· 목사, 시인, 문학평론가
· 저서: 타임즈 상임이사
· 연락처 : 010-9257-3844

언젠가 나의 세월은 헛도는 톱니바퀴, 나만 달랑 남겨놓고 제멋대로 흘러갔다. 하늘을 비상하는 건 다시 등지로 내려오기 위한 것, 기억은 또 다른 기억으로만 지워지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만 잊혀 진다. 앞의 길 달려서 갈 때, 뒤의 길 지워지듯,...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단명하다.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시드는 시집가서 죽은 누님 같은, 흰 박꽃이며 겨울나무 가지위에 꿈의 환상처럼 피어나는 눈꽃을 보라. 그들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주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순수의 그림자, 세상은 그들이 살만 한 텅 빈 순결의 공간이 없다.

유 주연 시인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정체성 찾기 위해 부단 노력하는 모습이 초롱불같이 어둠을 밝히며 밤에 피어나는 박꽃처럼 청순하고 아름답다. 더 좋은 작품으로 우리를 감동케 할 것을 믿는다.

2011, 10월의 밤, 귀뚜라미 우는 복사 골에서 박 영남

인생여행의네가지필수품

3박 4일만 여행해도 우리는 다양색의 준비물을 챙기느라 정신없다. 화장품. 갈아입을 옷, 먹어야 할 약, 메모할 노트..... 심지어 어떤 소설가는 다림질한 잠옷과 귀를 후비는 면봉까지 챙겨 간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행에서는 어떤가. 80~90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는 특별한 준비 없이 무작정 살아간다. 하지만 행복한 인생여행을 꿈꾼다면 최소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마음의 두레박이라는 자기 절제력이다. 사람 마음처럼 변화가 잦은 것도 없다. 하루에도 수백 번 금방 겹다 흐려다한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마음이 흐려 있다면 우울증

에 빠지기 쉽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때 두레박으로 마음을 끌어올려 보자. 그리고 전망 좋은 곳에 마음을 두고 다시 한 번 세상을 바라보자. 것처럼 절망적이진 않을 것이다. 어떤 곳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해도 뜨고 달도 뜨기 때문이다.

둘째, 이해(理解)라는 사다리이다. 살다보면 한 이불을 덮는 부부는 물론, 부모 자식, 친구사이, 형제, 이웃, 직장 동료 속에도 미운 사람이 섞여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밟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다 보면 결국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럴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자. 15층 정도의 높이만 올라가도 모두가 개미처럼 작아 보이고, 나도 모르게 인민이 생겨난다. '그래, 인생이 뭐라고 아웅다웅 살아야 한담!' '나 그들도

이유가 있겠지, 뭐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마음 사다리를 타고 남보다 더 낮은 곳에 자신을 세워보자. 이해 = under + stand, 즉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서 바라보면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상상력의 색안경이다. 우리의 현실은 메마른 사막처럼 광활할 때가 있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상상력의 세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랜 감금생활에서 석방된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 솔제니첸은 첫 마디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상상력이 나를 살렸다!' 부자유스러운 감옥 속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무수한 상상력의 세계였던 것이다. 또한 바다 한 가운데서 난파된 한 미국인 가족을 절망에서 구해낸 것도 상상력이었다. 배가 고된 아들은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햄버거를', 피로에 지친 아내는 '폭신하고 아늑

한 침대를', 아빠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품이 솟아오르는 음료'를 상상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상상력의 색안경을 꺼 보자.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이 오색찬란해질 것이다.

넷째는 낙관의 망원경이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각종 세균, 먼지, 바이러스 등 보기 싫은 것, 버서는 안 될 것들이 잔뜩 보인다. 반대로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저 푸른 수평선, 저 넓은 지평선이 한 눈에 속 들어온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낙천적인 사람은 파란 색의 눈부신 가슴을 품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새까만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내쉰다. 바로 이 망원경의 원리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비전, 낙천적인 정신이다. 이 네 가지를 품질 좋은 KS마크로 준비한다면 우리들 인생 여행은 아무리 길고 구불구불 험난하더라도 보람과 기쁨으로 활활 넘치게 될 것이다. 저자 : 엄상익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 총회

대한노회 제7회 성노회

노 회 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
승리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
백호삼릉교회

회의록서기



송베드로 목사
성령진리교회

회계



유윤주 목사
지구촌교회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호 7층) / H.P 010-4436-7060

예장(웨신) 대한노회 제7회 정기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비롯해 전원 유임되어



노회장 장한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한노회는 10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승리교회(오상렬 목사시무)에서 제7회 정기노회를 갖고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비롯해 전원 유임됐다. 박민규 목사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김은임 목사(감사교회)가 기도를 드렸으며, 이진경 목사(엘림교회)가 성경 히 10:32~39절을 봉독하고 회계 유운주 목사(지구촌교회)의 특송이 있은 후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전날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무 신언창 목사와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제7회 성노회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노회와 소속된 목회자들을 축하와 격려로서 인사말씀을 전하

고 총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장 노회장은 설교를 통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 안에서 어떤 어려운 박해가 있다 해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설교하고, 또한 주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바로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의 집례로 2부 성찬예식이 진행되고 박종언 목사, 김정미 목사가 각각 분병, 분잔위원을 맡았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 사회로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전회록 낭독과 절차보고, 각부보고에 이어 임원선거가 있었다.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승리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백호살

롬교회), 회의록서기 송베드로 목사(성령진리교회), 회계 유운주 목사(지구촌교회)등이다. 이날 신안건토의를 갖고, 4부 폐회예배를 드린 후 노회장 장한국 목사 축도로 성노회를 마쳤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의 결의문 내용

하나, 우리는 대한노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

둘, 우리는 성경을 최종권위로 세우며 복음과 진리의 개혁주의에 입각한 보수정통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

셋, 우리는 대한노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다스려지는, 즉 노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노선에 순종, 협조하는 대해 하나가 될 것을 다짐한다.

넷, 우리는 오늘날부터 대한노회 이름 안에서 하나이며, 노회원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서 하나 된 노회로서의 결속과 발전을 도모하며 더불어 총회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향노회 제17회 정기노회 및 이전감사예배



노회장 정대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경향노회 제17회 정기노회를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73-8호 4층 계산사랑교회(양덕심 목사시무)에서 개회되어 신임노회장에 정대중 목사를 선출했다. 경향노회 제17회 정기노회에 앞서 제1부 개회예배 및 계산사랑교회 이전감사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되어 중경노회장 양덕심 목사(계산사랑교회) 인도로 부노회장 김현숙 목사(새생명교회)가 기도를, 서기 열희정 목사(시온교회)는 성경 삼상17:33~37절을 봉독하고, 계산사랑교회 성도들의 특송이 있었으며 노회장 김학기 목

사(새생명교회)는 “충성된 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교회와 노회, 총회, 총회 인준 신학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회계 김정현 목사(임마누엘교회)의 봉헌기도가 있은 후 이 규 목사(노회고문/동산교회)의 권면과 임철환 목사(갈보리교회 노회고문), 신언창 목사(총회 총무)가 축사에 나섰으며, 총회장 성흥경 목사 축

도로 마쳤다.

제2부는 정대중 목사(서울천양교회)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되었고, 분병위원 강경복 목사(이레교회), 분잔위원 김세권 목사(이레교회)가 나섰다.

이어 노회장 김학기 목사 사회로 제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회원점명회 개회가 선언되었으며, 각 부보고에 이어 임원선거에 들어가 신임노회장 정대중 목사(서울

천양교회), 부노회장 양덕심 목사(새생명교회), 서기 장해순 목사(양무리교회), 부서기 최정오 목사(말씀능력교회), 회록서기 이선기 목사(생수교회), 부회록서기 강경복 목사(이레교회), 회계 강원기 장로(이레교회), 부회계 임인무 목사(세계제자교회), 감사 김현숙 목사(이레교회), 최선녀 목사(소망교회)등이 선출됐다.



지도자의 표상

모든 생명체는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오고 있다. 자연은 계절과 더불어 성장하며, 낙엽이 지고 열매를 남기며 겨울을 맞는다. 들녘의 벼는 황금빛으로 변해 일부는 벼 베기에 들어간 곳도 있다. 가을은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며, 특히 농촌의 경우는 쉴 틈도 없이 가을걷이에 바쁘다.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말하며 살아가게 한다. 그 동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국가변란 속에서 살아왔다.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36년간의 일본식민통치 아래에서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으며, 8·15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전쟁을 겪은 민족이다.

우리는 마치 금물살을 탄 조 각배처럼 안정을 유지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 온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며 세계 경제 국 대열에서, G3국가를 지향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의 많은 정치혼란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잘 견디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치발전은 곧 사회발전이며 경제발전인 것이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은 국민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념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전반에 있어 저변 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정계 지도자로 진출해 주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서민경제를 말하고 있

지만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든다면, 교통편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차를 타 보면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가 있다. KTX와 무궁화호는 요금에 있어 3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KTX에 책정되어 있다. 열차 운행 시간을 보면 KTX가 무궁화호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운행을 더 하고 있다. KTX의 잦은 고장사고도 무리한 운행을 있을 것이다.

철도는 국철이다.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을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도자들이 무궁화호를 타 보면 알 것이다. 열차 운행에 있어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KTX 2회 운행에 무궁화호 1회 정도 운행 한다면, 서민들의 교통편은 만족하리라 생각한다.

발전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높은 경제수치를 논한들 소외계층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상류층만 상대한다면, 저변 층과 소외계층은 지도자의 정책을 따라 갈 수 없는 것이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자상한 아버지의 표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여·야의 투쟁과 대립보다는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정책안을 선정함에 있어 합의로 결정한다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클 것이다. 또한 이념 갈등에 있어 좌파에 대



서영웅 목사

프리틴 정로교회 목사
본지 상임이사

해서는 날카로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발전은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이 분산된다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패의 좌파는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순수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촛불을 들려 시위 장소에 등장시킨 지난날의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청렴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4:13)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생활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심을 소리를 듣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이다. 모세는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보낼만한 자를 보내 달라는 것이다.

모세의 겸손과 운운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진정한 지도자의 표상이라 생각한다.

곽영민목사 초청 영성회복 성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에 대구 한나기도원에 영성회복성회가 이루어졌다. 인천 등불교회(담임 목사 곽영민)는 지난 10월10일-13일까지 대구 한나기도원에서 기대와 설레임과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의 주제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구성회는 우상의 도성 대구를 복음화 시키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과 영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속사

람이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의 어려운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기도원(원장 권태욱전도사)은 원장의 성령기쁨부으심의 강력한 영권으로 영성예배의 처소로서 최적지이며, 심신의 피로를 씻어줄 영혼의 쉼터를 제공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통이 편리해 (동대구구역 부근)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지사 박수영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석교회

담임 성형경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443-8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1170-7
☎031)204-5580 011-721-6038, 010-3938-3983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모상현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주요내용	전통적내용	비고
연구부	목회신학(MD)	전	신학(신학)과 신학(신학)을 통해 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주(주)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목회신학(MD)	전	신학(신학)과 신학(신학)을 통해 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신학부	신학(MD)	전	신학(신학)과 신학(신학)을 통해 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주(주)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신학(MD)	전	신학(신학)과 신학(신학)을 통해 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신학(MD)	전	신학(신학)과 신학(신학)을 통해 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2. 전형일정

원시합수 : 연초 개학
원시합수 : 연초 개학
원시합수 : 연초 개학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2매

4. 특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3) 신학(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신학)을 연구한다.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J) 연구원 원장 : 모상현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전남 순천시 자전동 162-6번지 / 담임 최승리 목사 010-6414-3307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학장실 : 061)242-1617
자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s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선 목사

예배 시간 안내

기	관	시	간	장	소
우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유	년	초	주일오전	11:00	2층
			주일오전	11:00	대예배실
중	고	동	주 일	오후3:30	2층
			주 일	오후3:30	대예배실
청	년	부	토 오 일	오후5:00	4층
			토 오 일	오후5:00	나사렛성전
셀	배	예	셀배	금요일	2층
			셀배	금요일	2층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전화 02)430-9107, 02)3402-271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장로 : 신호균

담임 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니엘교회

Haeksims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선 목사

예배 시간 안내

기	관	시	간	장	소
우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유	년	초	주일오전	11:00	2층
			주일오전	11:00	대예배실
중	고	동	주 일	오후3:30	2층
			주 일	오후3:30	대예배실
청	년	부	토 오 일	오후5:00	4층
			토 오 일	오후5:00	나사렛성전
셀	배	예	셀배	금요일	2층
			셀배	금요일	2층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전화 02)430-9107, 02)3402-271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장로 : 신호균

담임 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www.scogop.net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담임 이선 목사

예배 시간 안내

기	관	시	간	장	소
우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유	년	초	주일오전	11:00	2층
			주일오전	11:00	대예배실
중	고	동	주 일	오후3:30	2층
			주 일	오후3:30	대예배실
청	년	부	토 오 일	오후5:00	4층
			토 오 일	오후5:00	나사렛성전
셀	배	예	셀배	금요일	2층
			셀배	금요일	2층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전화 02)430-9107, 02)3402-271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장로 : 신호균

담임 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의를 다지며 좋은 일이 생기는 계기가 되길

자아통찰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는 한국교회의 영적지도자가 되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한기총)는 2011년 신임 교단장, 단체장, 총무 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7일 오전 11시에 엠배서더 호텔(서울 장충동 소재)에서 갖고 합찬 출발을 다짐했다.

한기총 공동회장 홍재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환영사에서 “오늘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석한 이들의 의를 다지며 좋은 일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명예회장 박종순 목사는 에베소서 1:19-22절 말씀을 통해 ‘함께 가는 한국교회’란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자아통찰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 상태가 자아통찰 없이 돌을 던지는 형국”이라고 진단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연합하고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총 명예회장 지 덕 목사, 립인식 목사, 김준규 목사가 축사를 했으며 예배장 합찬을 이기창 목사가 신임교단

장(단체장)을 대표하여 인사했다. 이후 축하배와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기총 명예회장 이성택 목사의 축사로 예배를 마치고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오찬을 나눴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 수평선이 보이는 모래밭 위를 걷는 꿈이었는데, 긴 모래 길은 자신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래길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늘 동행하신 예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마다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다.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라고 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너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왔단다.”

기독교의 특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기쁨과 고난, 슬픔 등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계실(마 10:30)정도도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알고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서 형통케 된 인물로 요셉을 들 수 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일이 잘되고 뜻대로 될 때에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처럼, 실패할 때에도 함께 계시고 병들었을 때에도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신

양병렬 목사

모란순복음교회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도 그 집의 살림을 책임지자 형통케 하심으로, 그 온 집이 축복을 받았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옥중의 죄수를 맡게 되자 옥안이 편안하게 되었다. 또한 애굽의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고 나라의 정치를 요셉에게 위임했더니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왕도 백성들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요셉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았다. 보디발 아내

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인 줄 알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낙담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눈감아주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고난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일이 수월하게 풀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원망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상황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악한 종이 한 장은 새끼손가락 가지도 고도 찢어지지만 철필이나 나무판의 의지하고 있으면 주먹으로 쳐도 찢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악한 종이 한 장과도 같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곁에 있게 될 때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 분의 때에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칼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보니 마지막 때의 믿는 자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의미를 알고자 어떤 목자를 찾아갔다. 이에 그 목자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며 한편의 영화를 보여주었다.

영화가 시작되자 넓은 사막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사막의 한가운데로 군인들이 전방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대머리를 한 남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림이 세워져 있었고 그 그림 뒤로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곳에는 좁은 길이라는 뜻말이 있었으나 그 길을 따라 기쁨과 소망과 겸손과 자유와 평화를 주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좁은 문이라는 뜻말이 서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낙원과 같이 좋은 곳이 펼쳐져 있었다. 반면 왼쪽 길에 시작되는 곳에는 넓은 길이라는 뜻말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서는 멋진 자동차와 좋은 집과 놀이동산과 나이트클럽과 술집들이 즐지어 서 있었고, 창녀들이 슬픔과 낙심과 교만과 억압과 두려움을 주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넓은 문이라는 뜻말이 서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에는 사야 있을 때 자기의 욕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속이고 흘쩍고 싸우고 죽인 자들이 함께 모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잠시 후 어떤 여자군인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사막 길을 걷다 갈라지는 곳에 도착하자 모든 뜻말을 읽더니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왼쪽 길로 들어섰다. 그러므로 그 여자와 가족들은 그 길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귀다툼을 하다 마지막에는 그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또한 다른 여자군인들도 계속해서 왼쪽 길로만 들어섰다. 그러나 어떤 남자군인은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그곳에 도착해 모든 뜻말을 읽은 후 오른쪽 길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는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낙원 같이 좋은 곳에 가고 싶었으나 다리가 약해서 잘 걷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그 남자는 아내를 부축하고 자녀들을 이끌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갔다.

그러하여 그 남자와 가족은 그 길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다 마지막 때에는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낙원에서 도는 것을 즐기며 안식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군인도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뜻말을 읽은 후 왼쪽 길로 가려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또한 오른쪽 길로 가려다가도 멈추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 그냥 주저앉았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좁은 길로 걸고 있는 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 날카롭고 번쩍거리는 칼을 들고 좁은 문으로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에는 그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칼보다 더 날카롭고 번쩍거리는 큰 칼을 가진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자는 그 좁은 문을 나오지 못했으며 그러하여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을 한명도 죽이지 못했다. 결국 악한 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넓은 문을 통해 나왔다. 그리고 그 길에 있는 창녀들의 옷을 벗겨 차례차례 칼로 베어죽이며 갈림길에 앉아있는 그 가족을 향해 다가왔다. 그러므로 그 가족은 살육을 위해 날카롭게 마광된 그 칼을 보고 무서워 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왼쪽으로 가려다 발걸음을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려다 멈추고 갈림길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므로 그 가족은 가만히 서 있다. 결국 그 악한 자의 칼에 맞아 죽음을 당했다.

이제 영화가 끝난 후 목자를 찾아갔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영화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사막과 갈림길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대머리를 한 남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림이 있는 곳까지 갔다. 그러나 왼쪽으로 가려다 발걸음을 멈추고 오른쪽 길로 가려다 멈추고 그냥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가족도 그곳에 가만히 서 있다 그 악한자의 칼에 죽음을 당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는 자들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스스로 멈추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처럼 그의 삶과 피를 드리라 하면 죽음이 두려워 그것도 피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으로 들어갈 헛된 세상도 좇지 못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도 하지 못하여

윤요셉 목사

기도합의회 사무총장



그저 그 가운데 그대로 주저 앉아있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 교회시대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한 발은 그리스도께 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는 자들이 참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첫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즉 주님과 세상에 대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므로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드리고 있다. 그들은 또한 아버지의 뜻과 거룩한 육체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 대해 마음이 뜨거운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의 거룩에 애쓰고 있다. 그러다 마지막 날에 그 좁은 문 앞에서 이렇게 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 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앞날의 일이니 그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군사들이 그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외침이니 그들은 바로 이 말을 하며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하여 그들의 그 뜨거운 피가 자기의 말하는 것들을 정확히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 3:15). 생명의 근원되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이시요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말씀을 안다면 이를 지키면 은혜와 유익이 있을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는 말씀에 자신의 생명이 있으니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유익하다.

최음 사랑으로! 최음 믿음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사96:6-9)

“종교와 위업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세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은 땅에서 그 앞에서 떨지다.”

대광교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10-9
대표전화: 031)384-7408 부부사실: 384-9744, 385-8933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믿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2011교회 표어
“남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자!” (행2:47)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설

2011년 10월 23일 주일

구분 시간 장소 대 상

주일예배 1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9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0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1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2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3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4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5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6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7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8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39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0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1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2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3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4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5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6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7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8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49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0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1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2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3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4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5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6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7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8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59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0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1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2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3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4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5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6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7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8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69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0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1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2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3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4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5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6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7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8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79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0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1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2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3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4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5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6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7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8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89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0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1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2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3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4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5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6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7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8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99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0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1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2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3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4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5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6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7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8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09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0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1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2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3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4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5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6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7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8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19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0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1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2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3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4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5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6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7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8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29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0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1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2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3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4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5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6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7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8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39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0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1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2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3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4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5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6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7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8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49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0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1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2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3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4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5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6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7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8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59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0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1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2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3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4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5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6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7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8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69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0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1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2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3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4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5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6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7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8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79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0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1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2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3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4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5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6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7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8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89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0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1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2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3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4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5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6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7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8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199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0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1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2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3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4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5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6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7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8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09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0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1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2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3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4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5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6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7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8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19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0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1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2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3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4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5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6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7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8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29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0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1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2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3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4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5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6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7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8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39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0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1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2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3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4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5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6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7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8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49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0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1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2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3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4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5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6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7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8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59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0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1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2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3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4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5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6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7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8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69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0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1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2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3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4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5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6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7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8부 1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79부 1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0부 1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1부 2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2부 3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3부 4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4부 5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5부 6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6부 7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7부 8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8부 9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89부 10시 30분 본당 성도회

주일예배 290부 11시

한국교회 각 교단총회 끝나 화합으로 결속을 다짐



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 통합 총회장 박위근 목사, 기장 총회장 유정성 목사, 백석 총회장 유중현 목사, 합신 총회장 권태진 목사, 고신 총회장 정근두 목사, 고려 총회장 박창환 목사, 개혁신총회장 장세일 목사, 한영 총회장 한영길 목사, 예장선무 총회장 김국경 목사

한국 교회 각 교단총회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교단총회를 열고 총회장을 비롯해 새 임원을 선출하는가 하면 일부 교단총회는 유인되어 교단의 정체성과 화합을 다지는 새 회기가 시작되었다.

JTNTV방송과 본지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와 전국 20개사 및 해외 13개 지사 직원일동은 한국 교회와 각 교단 총회장님을 비롯 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각 교단 총회장 및 임원

☆예장(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 목사부총회장 정준모 목사, 장로부총회장 이완수 장로, 서기 고영기 목사, 부서기 김형국 목사, 회록서기 이상택 목사, 부회록서기 김재호 목사, 회계 김권중 장로, 부회계 윤선을 장로 총무 황규철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박위근 목

사, 목사부총회장 손달익 목사, 장로부총회장 오정호 장로, 서기 김동운 목사, 부서기 안주훈 목사, 회록서기 장명하 목사, 부회록서기 정도훈 장로, 회계 김계룡 장로, 부회계 권복주 장로,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

☆기장총회 총회장 유정성 목사, 목사부총회장 나훈근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남근 장로, 서기 윤기원 목사, 부서기 윤재환 목사, 회계 허규현 장로, 부회계 민경자 장로, 총무 배태진 목사

☆예장(백석) 총회장 유중현 목사, 목사부총회장 정영근 목사, 장로부총회장 고민영 장로, 서기 이병후 목사, 부서기 차명수 목사, 회록서기 박용대 목사, 부회록서기 박종호 목사, 회계 안문기 장로, 부회계 정우진 장로,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

☆예장(합신) 총회장 권태진 목사, 부총회장 이철호 목사, 장로부총회장 황의용 장로, 서기 박성

호 목사, 부서기 구자신 목사, 회록서기 최철용 목사, 회계 김승모 장로, 부회계 송태진 장로, 총무 박 혁 목사

☆예장(고신) 총회장 정근두 목사, 목사부총회장 박정원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창대 장로, 서기 김상석 목사, 부서기 오병욱 목사, 회록서기 조태환 목사, 회록부서기 신수인 목사, 회계 박영호 장로, 부회계 이계열 장로,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

☆예장(고려) 총회장 박창환 목사, 부총회장 천 환 목사, 서기 이현상 목사, 회록서기 김원구 목사, 부회록서기 허호성 목사, 회계 이영훈 장로, 총무 강구원 목사

☆예장(개혁신) 총회장 장세일 목사, (1)부총회장 강대민, (2)회령국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일출 장로, 서기 박영길 목사, 부서기 임종학 목사, 회록서기 이경호 목사, 부회록서기 송요한 목사, 회계 박태식 장로, 부회계 전혁기

장로, 대내총무 박해현 목사, 대외총무 서익수 목사 사무국장 김인규 목사 사무간사 안운정

☆예장(한영) 총회장 한영길 목사, 목사부총회장 한영훈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진수 목사, 서기 김시흥 목사, 부서기 김정숙 목사, 회록서기 박경호 목사, 부회록서기 이광욱 목사, 회계 김상길 장로, 부회계 조영희 목사, 총무 김명찬 목사

☆예장(선무) 총회장 김국경 목사, 부총회장 고재운 목사, 부총회장 유영자 목사, 서기 김태환 목사, 부서기 오윤주 목사, 회록서기 김경순 목사, 부회록서기 이윤은 목사, 회계 윤영순 목사, 감사 김미숙 목사, 나도인 목사, 총무 이동우 목사, 부총무 김경인 목사, 김용강 목사, 부회계 김홍철 목사, 감사 김용철 목사, 공창호 장로

이 외의 많은 총회의 총회장과 임원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피어선총회 제19회 총회장 김홍기 목사 당선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피어선)가 지난달 27일 오전11시부터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북인천중앙교회(장사무열 목사)에서 “금세기의 세계복음화”란 표어로 개회돼 총회장에 김홍기 목사(중앙노회)가 당선되었다.

부총회장 장사무열 목사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김성숙 목사(총회서기)가 기도를, 장광석 목사(회록서기)가 례 12:1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박승철 목사는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염순녀 목사(회계)의 봉헌기도가 있었으며, 총무 서정숙 목사가 광고한 후 총회장 박 목사 축도로 개회예배가 끝나고 박 총회장은 성찬식을 집례했다.

이날 피어선총회 제19회기 신임원은 총회장 김홍기 목사(중앙노회), 부총회장 이형채

부총회장 이형채 목사 선출, 총무 서정숙 목사 유임

목사(경기서노회), 서기 송요한 목사(경기서노회), (부)주남수 목사(호남노회), 회록서기 박종현 목사(서울노회), (부)이순자 목사(서울복노회), 회계 조현숙 목사(경서노회), (부)최성길 목사(강원노회), 총무 서정숙 목사(서울노회) 등이다.

예장합동복음총회 총회장 곽동훈 목사 유임

부총회장 김기섭 목사 정은섭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음) 총회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소재 뽕엘교회(강정자 목사)에서 지난달 29일 오후2시 제96회기 정기총회를 갖고 총대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은 총회장 곽동훈 목사

가 유임됐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총회”란 주제로 합동복음총회 제96회기 정기총회가 총회장 곽동훈 목사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정은섭 목사가 기도를, 장백향 목사

가 성경봉독을, 강정자 목사의 특송과 박옥화 목사가 헌금기도를, 총회장 곽동훈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 서정일 목사 집례로 2부 성찬예식이 진행되어 장대규 목사, 박인숙 목사가 분잔, 분병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제96회기 신임원은 총회장 곽동훈 목사(행복의집), 부총회장 김기섭 목사, 정은섭 목사(남사랑교회), 서기 장백향 목사(양평금식기도원) 부서기 한찬현 목사, 회록서기 서정일 목사(예정교회) 회계 박종숙 목사, 부회계 박인숙 목사(화평교회), 총무 강정자 목사(뽕엘교회) 등이다.

국가 빚 내년 448조 절반은 세금으로 갚아야

“부채공화국 탈출 멀기만” 내년 국가채무 448조2000억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국회가 나라걱정은 뒷전 썸질만하다가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이는 여야 모두가 책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5조5000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 성 채무는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들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000억원(6.0%) 급증한 448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13년 이후에는 채무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지면서 2013년 460조원, 2014년 466조4000억원, 2015년 471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는 올해 208조7000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2014년부터는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49.4%인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8.5%, 2014년 46.9%, 2015년 45.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보다 높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33.4%)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3%, 내년 32.8%, 2013년

31.3% 등을 기록한 이후 2014년(29.6%) 이후 20%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파세·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자성채무를 줄이고자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9000억원, 2013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행이 급증한 국고채 만기가 내년부터 2015년에 집중됨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할 방침이며 국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정대성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이 있는 축복성회로 오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 배 · 시 · 간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금, 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교회 표어 : 복의 근원이 되시어다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많이 쌓을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1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중성 - 감절의 선교

부목사 : 송승길
장로 : 박광순, 김혜자
강도사 : 김성임
전도사 : 오정순 인사랑 최원희 박에스더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 · 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선교교회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프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저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성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아침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만큼은 알고만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4. 장애물이 되기 보다는

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 찬송가 506장

마태복음 23장 13-33절은 일반 적으로 '일곱 가지 화'라고 하는데 본문은 그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인도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공의와 정의의 재판관으로서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성경: 마태복음 23장 15절 찬송가 504장

본문은 "일곱 가지 화"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열심 있는 전도 생활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목적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을 얻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전도를 하는 마음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품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 마태복음 23장 16절-22절 찬송가 286장

본문은 "일곱 가지 화"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진실 되지 못한 맹세에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헛된 맹세를 수없이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든 맹세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맹세는 함부로 할 것도 아니며,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헛된 맹세를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수박 겉 핥기식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24절 찬송가 344장

본문은 "일곱 가지 화"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의 순종과 함께 그 말씀이 의도하는 영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 중 말씀대로의 문자적 순종은 철저히 지키면서 그 말씀의 근본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수박 겉 핥기식 믿음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결과 속이 같은 신앙

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26절 찬송가 420장

본문은 "일곱 가지 화"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는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 삶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척 거룩한 척이 아닌 삶의 모습에서도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선행의 참된 목적

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28절 찬송가 212장

본문은 "일곱 가지 화"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행은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경고하시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내가 높임을 받고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고자 선행을 베푸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성경: 마태복음 23장 29-36절 찬송가 253장

본문은 "일곱 가지 화"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죄는 묵인하면서 다른 이의 죄를 정죄하는 모습에 대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

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들춰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티끌도 가려 주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예루살렘아...예루살렘아...

성경: 마태복음 23장 37-39절 찬송가 275장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가증됨을 일곱 가지 화로 책망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나를 비통한 심정으로 보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악함으로 인해 돌아오지는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만큼은 주님께서 애통함으로 부르실 때에 회개함으로 내 가정부터라도 온전히 말씀으로 서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주님이 떠나가신 성전

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 찬송가 26장

본문을 보면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사와 찬미와 기도 소리가 가득한 성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제사와 찬미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강도의 굴혈이었고 외식과 가증함으로 가득찬 곳이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온전한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성전을 주님께서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가정들이 되

기를 소망합니다.

13. 십자가의 길 끝에는

성경: 마태복음 24장 3-14절 찬송가 341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 올 것을 예언합니다. 세상에는 성도가 적어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려놓지 않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붙든 믿음과 신앙이 변치 않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광을 받아 누리라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심판의 날에

성경: 마태복음 24장 15-22절 찬송가 160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아이 뱀 자들과 쫓 먹이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 합니다. 아이 뱀 자들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며 쫓 먹이는 자들은 세상적인 애정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땅에 거하는 자는 말세에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는 세상 것을 쫓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말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다른 것에 치우치고 눈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에 늘 단단히 붙어 있음으로 심판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path

지구에서 떠나가 버린 당신을 향한 아쉬움이 푸른 행성을 휘감아 줍니다. 당신의 사과는 한 입만 베어 먹은 것처럼 당신은 인생의 맛과 향을 순간 가득 즐겼을 뿐 탐욕스럽지 않았습니 다. 그 차가운 기술을 향기롭고 달콤한 사과처럼 배를 채우게 하지 않고 감동으로 남겼습니 다. 새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금 앞으로의 천년 인간상은 당신을 아담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브와 아담이 아날로그시대의 첫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은 디지털시대의 신인류 첫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구도자의 꿈으로 시작된 당신의 호흡은 기술을 예술로 춤추게 하고 공학을 인문학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마침내 상상을 현실로 만든 디지털 연



급술사 너무나 먼 미래를 바로 이 순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고별식까지 심플을 추구한 문인으로 생명을 리셋하여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다 먹고 내버린 사과가 아니라 한 입만 먹은 사과로 디지털 혁명 당원의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처럼 남았습니다. 그대는 당신만의 i-path를 간 우리의 영원한 추억입니다. 아니 영원한 지금입니다. <from 이주연>

세계최초 PC형 완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대용량 워크로 대량생산

원본(도스) 이외에 호드의 소프트웨어도 들어 있습니다

FORJEC전세용 분할식A3용기

교합 3도 6면, 3도 6면, 3도 6면, 3도 6면

최대적재 용량 2,500매

ADF출신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대 사이즈, 주보까지

2011년 신제품!!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 작업시간단축

★ 저렴한 칼라비용

칼라유지비 80%절감

⇒ 장당 20원 (20%원고)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사무환경 최적화

★ Flexibility

최대 540mm 인쇄

⇒ 다양한 출력물제작

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 High Speed

150매/분 (9천 매/시간)

⇒ 작업시간단축

★ One Pass Two Color

3릴2개 동시인쇄

⇒ 동시 3도 인쇄

★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 풀 칼라 구현 효과

★ Flexibility

최대 291X412mm (가드, 동봉, 연서)

⇒ 다양한 처리능력

고생산성 (High Speed)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③ 칼라드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고해상도 (High Quality)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mm, 용지46-210g/㎡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가림!

가격은 줄땀! 품질은 갈라!

이미 2,000여 개회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사들여도 알뜰을 집어주며, 복사/인쇄/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A3 20매

컬러 복사기

주보 인쇄기

양면 인쇄

팩스 (복사)

스캐너

컬러 프린터

음악 프린터

PC용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매/분

최고 90% 비용절감! 대량! 인화기-팩스! 프린터! 가능! 동봉! 양면! 3도! 고속! 인쇄!

무엇이든! 고해상도의! 다양한 출력물!

2011년 신제품출시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분당 최고 및 인쇄 속도의 저원하는 ₩4,585,000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890,000

중형용본 & 입지기 ₩400,000

중형용본 & 입지기 ₩400,000

중형용본 & 입지기 ₩400,000

중형용본 & 입지기 ₩400,000

주보인쇄기 보급 500대

전자출력장치와 주보복합기 200대 이상을

영광기업에 사용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장학영 정로

H·P: 010-5779-0691, 010-366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www.jubo114.com

1588-0691

종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창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 784-5890 ~ 2 Fax. 02) 784-5893 공전. 032) 561-4114

서울역 노숙인들과 예배드리는 윤요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리아교회 윤요셉 목사, 그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즉 서울역 11번 출입구 앞에서 우회전 하여 새꿈공원 앞에 자리한 가장 적은 2~3평 남짓한 좁은 공간 모리아교회를 설립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빵을 나누어주며 나눔의 목회를 하고 있다.

적은 교회이지만 매일같이 어김없이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로운 찬송이 울려 퍼지며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설교가 노숙자들의 심령 속으로 파고든다. 기성교회들처럼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등 어김없이 모여들어 찬송과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며 노숙인들 심령 밭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있는 윤요셉 담임목사.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요 목욕한지가 얼마나 됐을까 땀에 젖어서 땀새는 나지만 그래도 노숙자들의 입술을 통해 찬송과 기도소리가 나오고 아멘하면서 말씀을 받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만 한 천사들이 따로 없다. 모리아교회 담임 윤요셉 목사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혼구원의 중요성에 대해 송아지의 각을 뜨듯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기쁨부음 받은 사명자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해 도시, 농촌, 섬 지역에 이르기까지 십자가가 불아성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지만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이 보이질 않는 이 시대에 비록 2~3평 밖에 안 되는 쪽방교회에 당신이 진짜 목사라며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노숙자들이 있다.

비좁고 안자야 불과 20여명 쯤 아서 들이지 못하고 차가 오고 가는 도로 위험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노숙자들은 길바닥에 앉아 윤요셉 목사가 전하는 찬송을 따라 부르고 함께 두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며, 아멘아멘 한다. 이날도 교회 안팎으로 예배를 들이는 노숙자들은 40여명이 넘는다.

수요일 오후 2시 윤요셉 목사

는 로마서 13:1~14절을 봉독한 후 “올바른 신앙 자세”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다. 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가질 것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관해 설명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영원한 세계 천국을 간다며 열정을 다해 설교를 한다.

귀한 사역자임을 자랑하지 않으며 봉사활동을 원하는 분은

모리아교회 주보내용엔 성경대로 믿고 전하는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장 합동 측, 중부노회에 소속된 교회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진정한 성령

운동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진리 수호와 이 시대 참 복음전파에 함께 힘쓰는 주님과 성도들의 교회라며 목적이 분명하고 비전이 있는 교회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권창희 박사(집사)는 설교 후에 노숙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다. 한편 예배를 마친 후 노숙자들에게 라면과 음료를 제공했다.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하여 봉사활동을 원하는 분은 교회전화 070-8113-0191 휴대폰 010-8966-1180(모리아교회 담임 윤요셉 목사)으로 상담해 주세요 E-9191joseph@naver.com 9191joseph@hanmail.net

대리운전한 개척교회 목사의 안타까운 죽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평생 봉사활동에 힘쓰던 50대 목사가 생활고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노숙인 분들이 찾아오면 먹이고 재워주고 조금이나마 돈도 주고, 직접 가서 상담도 해주셨어요. 가없는 아이 엄마들에게는 기저귀와 분유를 사주셨고요”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을 잊지 못하는 딸 김소은(18) 양의 눈은 금세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붉어졌다.

김 양의 아버지 김성권(55) 목사는 지난 2000년부터 성남시 수

낮엔 설교를 하고 밤이면 대리운전을 한 김성권 목사

정구의 한 쪽방촌에 개척교회를 열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다. 택시운전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 봉사하는 삶을 꿈꾸며 30대 후반에 신학대학에 진학해 목사가 된 김 씨가 늦깎이 졸업을 한 뒤 열게 된 첫 교회였다.

그러다 지난 3월 저녁 김 씨는 강변북로 동호대교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중고차를 배달하러 가다가 차가 고장 나자 다른 차들이 피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보내던 중 달려오는 차에

치였던 거였다.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년 전 부터 낮에는 설교,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다 생긴 사고였다. 운영난으로 얼마 전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넘긴 뒤로도 하나밖에 없는 딸의 미술 학원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김 씨는 밤새 운전을 해야만 했다.

그래도 김 씨는 더 형편이 좋지 않은 다른 대리운전 기사 동료들을 도우며 늘 봉사에 소홀함이 없었다. 딸 소은 양은 “아빠는

본인도 넉넉지 않았겠지만 대리운전을 하시는 동료 분들을 돕고, 식사 대접도 하고, 자녀 분들에게도 불려 용돈을 주셨다”고 했다. 특히 “형편이 어려워도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아빠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주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그는 떠났지만 이웃을 향한 가르침은 남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CBS제공]

C국의 오지 산자락에 흔적을 남기며...

1년 전 어느 여름날~ C국 K지역에서 버스로 6시간을 달린 후, 다시 경운기를 타고 산자락을 휘감으며 2시간 반을 계곡을 지나 산속으로 향하였다. 과거 폭정을 피해 나온 몇몇에 의해 이룩된 마을들이 산속에 웅덩이를 파가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그곳에도 주남께서는 빛을 보내셨고, 복음을 파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무엇보다도 제자양육의 필요성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지고 초라한 신학교가 태동되었다. 대부분 신학생들은 머나먼 거리에서 와 하늘나라에 대한 학문을 익혀야 하기에 스무명 남짓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강권적으로 불려나온 선지생도들이다. 사실 물조차 없을 정도로 생활환경이 아직도 낙후한 지역에서 아무런 불만 없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학문에 전념하며 틈틈이 이웃지역을 돌아보며 전도활동을 한다.

이러저러 한해가 지났다. 몇 개 월 전부터 그곳 방문을 위한 초청이 있었지만 다른 주변국에 진행되고 있는 건축관계로 뒤늦게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는데... 우기의 때인 지라 길이 만만하지가 않다. 자칫하면 만남조차 없이 되돌아 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쏟아 붓는 폭우가 다행히

도 방문하는 그 날 만큼은 하늘이 푸르게 열려서 어렵사리 한해 전 만났던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준비한 모습이다. 며칠 전부터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예의 바른 영접과 차려입은 복장들...한국 같으면 교회에 오라고 빌다시피 해야 간신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이다.

너무 일정이 촉박하여 요구하는 행사를 급히 마치고 금세라도 돌아오고자 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마련했다는 음식 때문이라도 반드시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가야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매달리는 애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에 마음이 몽글해 집과 함께 잠시 붙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말벌과 싸우면서 채집했다는 말벌 애벌레 요리를 소개한다. 그 덕에 말벌 집에서 가져온 애벌레 특별요리에 저녁을 만드는 추억도 새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저 벌리자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괴곤하여 눈이 흐리게 된 것도 행운. 주님은 별레인지 무엇인지 특별한 구분도 없게 보이게 하시며 거부감을 제거해 주셨다. 엄격결에 한 스푼 입에 대니



학장 정기환 목사(D.Ed., Th.D.)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세계원주민 선교회 회장 시몬법인 기독교출판 이사장 부천 전원중앙교회 담임

나름대로 먹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그 보양식을 먹고 나니 눈이 밝아지고 몸이 거뜬해 지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해 주니 과연 특식은 특식인가 보다.

그저 1년여 만에 산골짜기에 세례자가 50여명 나왔으니 대단한 일이다. 아예 복음을 거절하던 또 다른 소수 민족도 함께 하고, 아울러 각박한 지역임에도 자립할 수 있는 특별한 일거리도 만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니 하산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지금도 복음은 살아서 세상 곳곳을 누비며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정이 되었다. 할렐루야~!



세례 후 축복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전국노회

경 제[96회] 성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축

2011 추계 성 노회를 축하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



노회장 김연준 목사
(158-841)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561-5
☎02-2608-0591, 010-4166-2307

김연준 목사(진리당교회)
조창원 목사(영광교회)
정기준 목사(은혜교회)
부서기 이광원 목사(독동임마누엘교회)
회계 김중호 목사(회복교회)
부회계 이도훈 목사(아사랑교회)
외회계 박노경 목사(주논교회)
부외회계 이정표 목사(만누리교회)
감사 이일영 목사(성문교회)
조영연 목사(CTS목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향노회



노회장 정태중 목사
(142-600)서울시 강북구 우체국사서함20호
H.P 010-5116-8457

정태중 목사(서울진양교회)
양덕심 목사(새생명교회)
장예준 목사(양우교회)
최정호 목사(말씀농성교회)
이선기 목사(생수교회)
부외회계 강경복 목사(이레교회)
강원기 장로(이레교회)
부외계 임인무 목사(세계제자교회)
김연숙 목사(민들레교회)
최선녀 목사(소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노회



노회장 이영중 목사
(143-826)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249-43
☎02-443-5153 H.P 010-8702-3927

이영중 목사(빛교회)
고재만 목사(왕자교회)
이승표 목사(안솔대리교회)
김경호 목사(주남교회)
김기철 목사(명정교회)
이영형 목사(외암교회)
유승태 목사(예수제자교회)
정영구 목사(꿈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 조철준 목사
(573-873)전북 군산시 문화동 549-21
☎063-467-9491 H.P 010-3944-9491

조철준 목사(큰빛교회)
강상문 목사(생성나무교회)
김선동 목사(큰빛교회)
이영림 목사(소망제일교회)
이명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안유찬 목사(라파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노회장 신동근 목사
(361-816)충북 청주시 흥덕구 병영1동 187-27
☎043-264-0691 H.P 010-2398-0692

신동근 목사(햇빛교회)
전진구 목사(즐거움교회)
김정욱 목사(충일교회)
유우환 목사(새외방교회)
김교만 목사(늘푸른교회)
오정환 목사(중산제일교회)
고준배 목사(서문교회)
전우현 목사(부전삼광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동노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463-81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수내B/D 5층
H.P 010-3136-0697

정규남 목사(주복음교회)
황금주 목사(수원소망교회)
김병무 목사(민들레교회)
여진 목사(예수행복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



노회장 정성택 목사
(477-823)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185-3
H.P 010-7130-3391

정성택 목사(연리지유센터)
김진중 목사(햇빛교회)
김영택 목사(주안별방교회)
김현호 목사(열두진주교회)
안옥자 목사(예사랑교회)
김옥란 목사(열매마음교회)
김재만 목사(빛과소금교회)
양명숙 목사(은혜중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노회장 박명남 목사
(200-112)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H.P 011-364-4280

박명남 목사(춘천중앙교회)
안영옥 목사(갈릴리교회)
유영종 목사(사랑샘교회)
변성희 목사(영일명성교회)

삶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축복언어컨퍼런스’

전국투어 축복언어로 전도의 문을 여는 ‘축복언어컨퍼런스’ 전국 교회 목회자, 평신도,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가정의 화목과 교회부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바람을 몰고 오는 허리케인처럼 축복의언어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크리스천 다움스피치센터 대표 전 아 목사... 분명이 들을 것이 있다.

해결된다. 놀랍다. 언어의 원형, 언어의 모본, 언어의 형성, 호흡의 생기 등을 찾고 회복하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

본지와 jtnt인터넷방송은 인물탐방에서 한국스피치강사협회 회장이며 크리스천 다움스피치센터 대표 전 아 목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강사 Profile **전 아 목사**(다움스피치센터 대표)

▲정. ‘축복언어컨퍼런스’란 무엇인가요?

△전. 크리스천의 성경적 언어생활을 추구하는 것으로 1984년 C.S.T.S (Christian Speech Training Course), 즉 ‘크리스천의 성경적 언어생활훈련’으로 출발하여 오늘의 B.B.S.T(Bless & Breath Speech Therapy), 즉 ‘축복언어생기회복세미나’ 100회를 맞아, 삶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축복언어컨퍼런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 전국기독교총연합회문화원 개원 첫 번째 행사로 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아사다시피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귀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과 염려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분이 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예컨대 신앙생활은 있으나 생활신앙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먹으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미흡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정. 그러면 B.B.S.T세미나를 통한 훈련을 통하여 개선될 수가 있나요? 어떤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전. 네! 개선될 뿐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언어생활을 하다보면 어느새 회복되고 치유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첫째는 축복언어이고 둘째는 생기회복입니다. 언어는 씨가 되어 뿌려 진대로 거두게 되고,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잘 관리하면 육적 건강은 물론 영적 평안과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표현한 슬로건이 있죠. ‘복되게 말하면 삶이 회복되고 바르게 숨 쉬면 몸이 회복된다.’

▲정. 복되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 바르게 숨 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물론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맥스웰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는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이 되겠네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본 세미나의 풀코스는 주당 1회 3시간씩 7주간 계속되는데 본인의 성실성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나지요. 한 주 1회 참석만으로도 놀라운 경험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비유는 적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간은 6일로, 6일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효과를 체험하게 되나요?

△전. 참여하신 분들이 작성한 훈련성과 양케이트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능력언어, 사랑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언어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C.C.C 허양 간사
2. 인격적 대화로 부드러운 회의, 설교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백교회 이승영 목사
3. 문장 구분 법을 활용, 설교 처리능력과 음성관리능력이 향상되었다. 은성교회 박은일 목사
4. 언어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생기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다. 승전교회 최충환 목사
5. 장. 단. 고. 저, 문장 구분법과 모노로그 연습

로 대화체 설교로 변했다. 큰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6. 행복한 마음과 생활신앙이 향상되어 본 세미나를 전국교회에 권하고 싶다. 안산천산교회 김수구 목사
7. key tone를 찾아 음량과 음폭이 확장되어 찬양과 성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성악가, 지휘자, 장신대 기독교음악과 임재일 장로.
8. 피로를 쉽게 느끼고 잘 풀리지 않았는데 바른 호흡법으로 많이 좋아졌다. 화곡교회 염희재권장
9. 고른 호흡으로 피곤이 사라졌고 복식호흡으로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황영복 사모
10. 성경읽기가 수월해지고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다. 광림교회 유한자 권사

▲정. 이번에 4시간정도 교육을 진행 하하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 축복언어의 중요성과 호흡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한 말씀만 깨달아도 변화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정.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전. 네, 성경적 언어생활은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하며 성경의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더 정확한 답은 육신으로 오셔서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그 답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언어의 원형을 찾아라!(The origin of language) 하나님의 언어 4단계, 영성언어(말씀+찬양+기도+일상어)
2. 언어의 모본을 찾아라!(The model of language) 예수님의 품위언어, 지혜언어, 능력언어, 생명언어, 치유언어
3. 호흡의 생기를 찾아라!(The breathing of life) 존재호흡, 고른호흡, 둥근호흡, 흡식호흡, 횡격막호흡, 복식호흡
4. 자신의 진성을 찾아라!(The origin of vocalization) 발성, 발음, 감정, key tone & mind gear working.

▲정.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에서부터 호흡, 발

악 력

- 서울예술대학 (연출연기전공),
- 정로회 신학대학원,
- Continental University(Ph. D) T. B. C
- 성우실장역임~ K. B. S 12년간 재직,
- 현 한국스피치강사협회 회장,
- 에듀미션 공동대표,
- 전아스피치아카데미 원장
- (cafe.daum.net /speechacademy)

수행경력

- ▶방송 대표작 : “아차부인재치부인”(재치 역), “독수리오형제”(1호주인공 역)
- ▶연극 대표작 : 데미안, 잔적, 루터, 날개 없는 천사(모노드라마) 외 40여 편
- ▶영화 대표작 : 인디안 섬 메(박 신양, 이미연, 장용, 전아 출연)
- ▶수상, 선정
 - 드라마센터 주최 전국 학생경연대회 유치진 배(연기상)수상
 - 기독교문화대상 문명문화상 수상(타오르게 하소서/극본, 연출)
 - 전쟁 60주년 60인 평화예술가 연가치 부문 선정

성 등 실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언어생활에 있어 무슨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요?

△전. ‘나는 왜 말하기에 부담을 가지는가?’ ‘나는 왜 말할 때 힘이 드는가?’ ‘나는 왜 말하고 나서 후회 하는가?’ ‘나는 왜 목이 잘 쉬는가?’ ‘나는 왜 정작 할 말을 못하는가?’ ‘목소리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등입니다.

▲정.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근본목적입니다. 말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우리의 말이 영성언어(Spiritual Language)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성언어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과 드리는 기도와 일상어가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 이번에 3차에 걸쳐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언제 어디서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겠습니까?

△전. 제 1차는 중흥교회 11.1(화) 오전10시~오후4시 제 2차는 성수동 힐스영성원 11.3(목) 시

간은 동일

▲정. 이 큰 행사를 어떻게 무료로 하시나요?

△전. 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교재비만 1만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와 식사준비를 위하여 예약 등록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착한소비운동본부에서 식사와 사은품을 준비하시고 광고와 진행경비를 담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전아 목사님께서

는 연극을 전공하시고 또 방송인으로 최장수프로그램 ‘아차부인재치부인’ 재치역과 ‘독수리오형제’ 재치 주인공 목소리로도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표현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겠군요?

△전. 역설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표현의 기술이 성경적 언어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장을 해제한다는 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알겠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여야

답을 알 수 있겠군요. 축복언어컨퍼런스가 한국교회에 신선한 바람이 되고 생활신앙과 교회부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우 목사 2010년, 2011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회의 부총재
- 라이프월드선교협회의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저지스티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0년 7월

- 5-7 성신교회(이명배 목사)
- 1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12-16 신학성여름특별세미나
- 19-22 에버다움담기도원(최민수 원장)
- 23 21세기성령회 운동본부연합집회(노베드로 목사)
- 26-29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2010년 8월

- 2-5 수도산기도원(이영인 원장)
-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9-12 성산수양관(윤호관 원장)
- 16-18 경성교회(이경근 목사)
- 23-25 진접오남지역 연합성회(이원경 회장)
- 26 양평금식기도원(장기호 원장)
- 26-27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 30-9.1 푸른초장교회(김홍렬 목사)

2010년 9월

-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6-8 회계원장로교회(김동권)
- 13-16 교단총회
- 15 정동교회(백현기 목사)
- 20-24 인도선교집회(병갈로)
- 26-28 성산성결교회(안성기 목사)

2010년 10월

- 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 8 한일산기도원(이영권 원장)
- 11-12 정기노회
- 12-14 주영광교회(김상욱 목사)
- 16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 17-20 동서울성령교회(라계동 목사)
- 22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 24 주님의 교회(양한기목사님)
-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25-27 초대산기도원(이종화 목사)
- 28 천안이념치는 교회(김항주 목사님)

2010년 11월

- 1-3 신천정로교회(강형구 목사)
- 8-10 경성교회(이원경 목사)
- 15-17 수원평안교회(김원구 목사)
-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 26 소망기도원(연인애)
-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29-2 00선교지방문

2010년 12월

- 3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열 목사)
- 13-15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 20-24 00선교지방문
-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 27-29 논곡제일교회(소동영 목사)

2011년 1월

- 1/1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홍목사)
- 7 한일산기도원(이영권원장)
-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 13 가리고단 제직세미나
- 16-19 성미음교회(연동화 목사)
-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 24-7 갈멜산기도원(이옥관원장)

2011년 2월

- 31-4 캄보디아 선교대상회
- 6 요정중앙교회(최복대 목사)
- 7 출산반성교회(김영진 목사)
- 13 천산수양관(유택진 원장)
- 14-17 성산수양관(윤호관 원장)
- 20 한강중앙교회(한정국 목사)
- 21-23 미추교회(전웅기 목사)
- 24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 27-3/2 원당성로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봄철축복대시방

- 7-10 성석교회(권재영 목사)
- 13-16 월계성도교회(김종복 목사)
-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 28-31 은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4월

-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 7-9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 10-12 정기노회

2011년 5월

- 2-4 서울서지방예전도연합성회
-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 16-18 동대천교회(홍우열 목사)
-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 6-8 소망금교회(이용진 목사)
- 선교지 방문
- 13-17 17(금)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 20-22 성령나무교회(성낙근 목사)
-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 11 신학성여름특별세미나
-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원장)
- 25-27 원주별영교회(김정호 목사)

2011년 8월

- 1-4 금산인마는엘수양관(이수영원장)
- 5 한일산기도원(이영권원장)
-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 8-11 광은기도원(김합배원장)
- 15-18 갈멜산기도원(이옥관원장)

2011년 9월

-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 23 오소리 금식기도원
- 29-9/1 도곡산기도원(양재원장)
- 5-9 은누리복음화협의회(장기호 총재)
- 11-13 동국회(김호익 목사)
- 12-15 은평회(홍세동 목사)
- 19-22 교단총회
- 26-28 성령교회(지동수 목사)

2011년 10월

- 2-5 양주 비전교회(김학현 목사)
- 10-11 정기노회
- 11-13 행복한교회(김초의 목사)
- 17-19 은곡교회(홍세동 목사)
- 23-2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 27 오소리 금식기도원
- 31-11/2 광릉교회(김성용 목사)

2011년 11월

- 2-5 모원 제일교회(이규선 목사)
- 7-10 기쁨축복성회(매복교회)
- 14-17 인도 선교 방문
- 21-25 서경교회(김성수 목사)

2011년 12월

- 5-7 대흥교회(정남기 목사)
- 12-16 인도 선교 집회
- 19-22 소망영성회(연인애 원장)
- 26-28 반석중앙교회(이영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그교회협 제76차 신입회장에 장성영 목사 선출

목사부회장 이수영 목사, 김탁기 목사 장로부회장 임헌근 장로 상임총무 엄만동 목사



회장 장성영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협의 회 제76차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6일 오후 4시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박물관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신입회장에 장성영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최북대 목사(수도지방회장)인도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서천석 목사(전남지방회장)가 기도, 장로협의회 임원일동의 특송이 있는 후 회장 육윤식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회장 육윤식 목사는 새서울(지수광 목사), 경인(최영준 목사), 강원(박영우 목사), 충북(정병기 목사), 대전(김덕원 목사), 전남(서천석 목사)에게 각각 신임지방회장 축하패를 전달하고, 12년간 동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해온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에게 특별공로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중경회장 김종만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의장 육윤식 목사의 사회로 제76차 회무처리가 진행된 후

무기명 투표결과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신입원은 회장 장성영 목사(경인교회) 부회장 이수영 목사(신성교회) 김탁기 목사(수원교회) 임헌근 장로(신탄진교회) 상임총무 엄만동 목사(성광교회) 협력총무 주경립 목사(해남교회) 김상영 목사(의정부임마누엘교회) 전장원 목사(송의교회), 오홍근 목사(재원교회), 서기 신동식 목사(성동교회) 부서기 황한호 목사(예안교회) 회의록서기 정경립 목사(계곡교회) 부회의록 권상훈 목사(새소망교회) 회계 김용강목사(청주중앙교회) 부회계 김홍철 목사(하나교회) 감사 김용철 목사(전주교회) 공창호 장로(임마누엘교회)등이다.

신임회장 장성영 목사는“회장으로서 먼저 할 일은 협의회다운 협의회를 구상하고 있고, 협의회는 모든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가 모여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서 협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또한 전국지방회 월례회 때는 심방을 해서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개개인을 만나고 협의회 모임, 즉 목회자 및 그리스도인의 화합을 위해서 밀거름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그교회협76차총회 단체기념

첫째 목표이다.

둘째로 학교문제이다. 교회(협의회) 서울기독교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모색하여 목회자 양성 및 재교육의 과정을 실시하는 등 목회자의 실력향상을 위하여서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셋째는 2016년 그리스도의교회세계대회 개최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먼저 교역자회(무악기측)와 총회측과 함께 준비기구를 설치하고, 또한 재정적인 준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모금이 실행되도록 힘쓰겠다.

넷째는 은퇴목회자와 사모들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은급관(가칭: 환원동산)건립을 위해 그 기초적

인 작업 및 실천을 추진하겠다.

다섯째는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심본 발휘하여 협의회를 비롯하여 지방회 및 개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행정 쇄신에 힘쓰겠다.

끝으로 이러한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이루어지기까지 위해서 임원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환원정신)을 기초로 하며, 사람의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한편 장 회장은 2012년도 교역자 하계수련회는 전국 그리스도교회협의회 교역자 수양회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강요된 예배가 문제일 수도…”

한국교회발전연구원 ‘한국교회의 예배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연구발표회

‘교인수의 정체’와 ‘사회의 비난’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한국교회의 예배는 너무나 많은, 강요된 예배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그렇게 많은 예배에도 왜 삶은 변하지 않나”

지난 6월 창립된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사장 이영훈 목사)은 18일 저녁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국교회의 예배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교회의 예배진단’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경진 교수(장신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맞은 위기의 밑바탕에 ‘예배의 위기’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주일예배를 비롯해서 매일 모이는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주일저녁예배, 철야기도회 등 열정적인 예배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모이고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던 특징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도리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되물으며 한국교회 예배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에 △예배신학의 부재

△교단이 신학이 잘 드러나지 않은 에큐메니칼한 예배의 모습 △예배의 토착화 과정에서 스며든 기복적·무속적 예배 요소 등을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보다 전행적인 예배관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강요된 예배에 소모하기 때문은 아닌지” 논란에 나선 객재욱 목사(동막교회, 장신대 겸임교수)는 위기의 상황에 놓인 한국교회의 현실 및 그 배경에 예배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음에는 동의하면서도, ‘예배의 위기’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했다.

김 교수는 피력한 바와 같이

제휴사 뉴스미션

예장순장총회 제59회 총회장에 유영섭 목사 당선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제59회 정기총회가 19~20일 용인 백암수양관에서 개최돼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유영섭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되어 교단 통합 문제와 신학교 성장과 발전에 힘쓰겠다고 했다.

19일 오전11시 총회장 전충현 목사 집례로 부총회장 지태일 목사가 기도하고, 전총회장은 시95:1-5절을 제목으로 “감사의 힘으로”라는 제

신들과 의논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총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려개혁과의 교단통합은 시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은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한다면 교단이나 총회가 유익한 일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



총회장 유영섭 목사

학 교는 하나님의 섭리가운데서 마지막 때 홀출듯하고 귀한 종들을 배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학교로 확신하고 있는 유 총회장이다.

또한 총회와 지교회가 협력하여 신학교 운영에 후원을 힘쓸 것이며, 그 밖에 산적한 문제들이 총회에 많이 있지만 더욱 노력하고 총회발전은 물론 모든 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아울러 구제활동이나 선교에도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최선을 다해 힘쓸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총회장 이하 임원은 목사 부총회장 지태일 목사(한빛진원교회) 장로부총회장 박종선 장로(동침교회) 서기 강철 목사(대전교회) 회록서기 이재성 목사(신천교회) 회계 위용찬 장로(안천교회) 부회계 김선성 장로(대전교회) 시찰부장 권경희 목사, 부부장 박장복 장로, 선교부장 김동민 목사, 부장 김일수 목사, 김은태 장로, 교육부장 엄광일 목사, 부부장 사명법 목사, 고시부장 지태일 목사, 재단부장 김인근 장로, 부부장 추영조 장로, 재판국장 윤정현 목사, 등이다.

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예식을 집례한 후 축도로 마쳤다.

총회장 유영섭 목사(안천교회)는 2008년 제56회 총회장에 이어 제59회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한 번 총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유 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총회장으로 중임을 맡았다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협력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총회적으로 당면한 문제, 신학교 문제, 교단 통합문제 등을 임원들과 또는 총회산하 여

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난해부터 고려개혁과의 통합은 구체적인 전문과 규칙까지 합의를 마쳤으나 좀 더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장 통합을 추진하기보다 더 연구하자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물론 신학교 운영문제도 작은 교단에서 큰 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동 교단 신



제59회 정기총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없던이 무너지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교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세계관주인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원회 총재 ◆전원종교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학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위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美)University of Sydney (美)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명철교수(번역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임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현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 (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